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학사 · 전문석사 통합과정]

제시문 [1]

코로나 19 공포가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어 더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의 국가 의료보험과 달리 미국은 민영의료보험 제도로 인해 보험 미가입자들이 검사와 치료를 꺼리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거주하는 B 씨는 지난 2 월 말부터 가슴 통증과 고열로 세 차례 병원을 방문했고, 결국 코로나 19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그녀가 공개한 코로나 19 진단 검사비용은 약 110 만 원이었으며, 치료비로 청구된 금액은 무려 약 4280 만 원이었다. 그녀는 ‘이 금액을 갚으려면 10 년은 더 걸릴 것’이라며 호소했다.

한국에서 최근 코로나 19 에 감염된 한 환자는 약 19 일 동안 치료를 받았고, 병원 측으로부터 명세서를 받았는데, 진료비 총액이 970 만 원이었고 환자부담총액은 140 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 금액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했다. 결국, 이 환자는 병원비 중 의료용품비 4 만여 원만 부담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약 2700 만 명 이상이며,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내 한국 유학생들은 서둘러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미국 4 천만 원-한국 4 만 원, 극과 극 코로나 치료비”

2020.04.06. 기사 일부 발췌

제시문 [2]

최근 ‘공정’이라는 단어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세계적 석학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지나치게 이른 나이에 인생 향로가 결정되는 한국 사회의 경쟁적 능력주의를 ‘불공정 논란’의 원인으로 꼽았다.

(중략)

높은 교육열과 경쟁 사회를 통해 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성공했지만, 과열된 경쟁을 돌아보려는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샌델 교수는 지난해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원제: 능력주의의 폭정)’에서 미국의 학벌주의와 공정하지 않은 대학 입시 제도를 비판했는데, 한국의 높은 교육열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비슷한 비판을 꺼냈다.

제시문 [3]

A는 국내 최정상급 운동선수로 올림픽 국가대표에 선발되었다. 그런데 A의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밝혀져 향후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진 상태이다. A가 출전하지 못하면 올림픽 대표팀의 전력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시문 [4]

명의(名醫, 저명한 의사)와 양의(良醫, 좋은 의사)를 정의하고 차이를 설명해보시오.
지원자는 둘 중에 어떤 치과의사가 되고 싶은가?